

펀드매니저가 들려주는

신영주니어 경제박사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2020. 07. 27. ~ 2020. 10. 26.



주니어경제박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3개월 동안 여러분의 펀드는 +10.49%의 수익률을 보였어요. 같은 기간 +5.90%를 기록한 비교 지수와 비교했을 때 4.59%p 더 높은 성과를 기록하게 되었어요.

지난 3개월 동안에도 한국 주식 시장은 지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갔어요. 지난 3개월 간에는 국내 기업들의 4월부터 6월까지 사업을 얼마나 잘했는지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해당 기간에도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 사람들의 이동이 급격히 늘어나진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기업과 실업자 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계획안 등이 추가로 나올 것으로 기대되었고, 주식 시장이 이에 대한 기대를 먼저 반영하여 상승세를 보였어요.

다만, 9월 초 들어 미국 주식시장은 약 한 달여간 하락을 보였었는데요.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미국의 중앙은행이 돈을 더 풀어서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에 실망한 투자자들의 매도세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여요. 국내 주식 시장도 9월 중순 이후 다소 하락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답니다.

주니어경제박사 펀드는 해당 기간 동안 코로나 시기 큰 주가 상승을 보인 제약/바이오의 비중을 차익 실현 관점에서 다소 낮추고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수혜를 볼 확률이 높은 유통, 음식료, 운수장비 등의 업종 비중을 상향하였습니다.

펀드 성적을 살펴 볼까요~!

<주니어경제박사 수익률 및 펀드 규모> 기준일 : 2020.10.26.

(비교지수 : KOSPI 90.0% + CD91 10.0%)

+ 10.49 %

최근 3개월 수익률

주니어경제박사 펀드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2020. 07. 27. ~ 2020. 10. 26.) +10.49%입니다.

비교지수 수익률이 +5.90%인 것에 비하면 4.59%p만큼 높습니다.

최근 1년 수익률

+ 19.32 %

비교지수 : +11.46%
비교지수대비 : +7.86%p

최근 3년 수익률

+ 3.87 %

비교지수 : -4.07%
비교지수대비 : +7.94%p

최근 5년 수익률

+ 29.09 %

비교지수 : +14.43%
비교지수대비 : +14.66%p

신영주니어경제박사



www.syfund.co.kr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25,060백만원

순자산 총액

+0.58%p ↑

증감률

주니어경제박사 펀드 투자 바구니에 얼마나 많은 돈을 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순자산 총액이에요. 순자산 총액이 3개월 전 보다 0.58%p 커졌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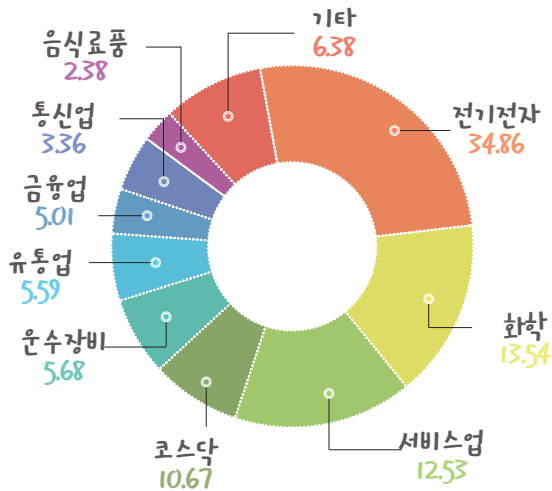
※ 증감률이란? 우리 펀드가 3개월 전보다 얼마나 커졌는지 혹은 줄었는지를 말해줘요.

우리 펀드는 어디에 투자되고 있을까요?

우리 펀드의 투자바구니에는 주식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펀드매니저가 여러 회사를 직접 방문하면서 평가하여 앞으로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회사를 신중하게 골라내어 우리 펀드의 투자바구니 안에 담았어요.

우리 투자 바구니 안에는 어떤 주식이 있을까요?

<업종별 투자비중>



<주요 투자 종목>

(기준일 : 2020.10.26, 단위 : %)

1위	삼성전자	21.66	6위	현대차	3.17
2위	LG화학	5.21	7위	NAVER	2.74
3위	코웨이	4.94	8위	현대모비스	2.40
4위	SK케미칼	4.25	9위	LG생활건강	2.26
5위	SK하이닉스	3.58	10위	삼성전자우	2.18


2020년 10월 26일 기준으로 주니어경제박사 펀드는 전기전자 업종을 가장 높은 비중으로 담고 있어요. 종목은 삼성전자, LG화학, 코웨이 등의 종목을 높은 비중으로 들고 있습니다.

신영주니어경제박사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신영자산운용
www.syfund.co.kr

<주니어경제박사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을 알아보나요?>


 SK케미칼

친환경 화학 소재, 제약, 백신 등을 개발 및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방역 소재 공급 및 백신 개발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LG화학

LG화학

플라스틱, 사시, 파이프 등 석유 화학제품의 기초소재를 제공하는 사업, 첨단소재 사업 등을 하고 있어요.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를 생산하는 사업 또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기차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되며, 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코웨이

1998년 렌탈 비즈니스 개념을 업계 최초로 도입한 기업이에요.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침대 매트릭스 등을 렌탈 및 관리해주는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어요.

투자자산매매내역을 알아보나요?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율> 기준일 : 2020.10.26.

(단위 : 백만원, %)

매수

수량	금액
68,388	3,110

매도

수량	금액
70,274	5,240

매매회전율

해당기간	연환산
20.56	81.58

<최근 3분기 주식 매매회전율 추이>

(단위 : %)

2020.01.27 ~ 2020.04.26

27.73

2020.04.27 ~ 2020.07.26

40.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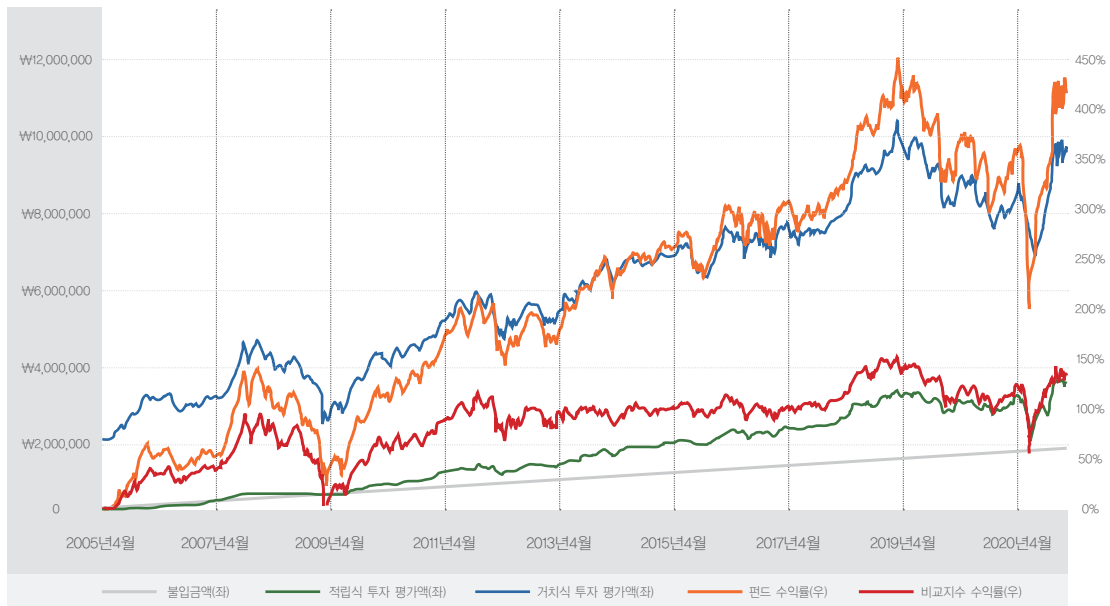
2020.07.27 ~ 2020.10.26

20.56

주니어경제박사의 경제열전 - 펀드투자방법 (Feat. 거치식, 적립식) 이야기

주경박 친구들, 이번 경제 열전에서는 주니어경제박사의 설정 이후 수익률 결과를 나타내는 그림을 통해 펀드 투자의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에 대해 다뤄보고자 해요.

먼저, 펀드 투자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거치식 투자**와 **적립식 투자**인데요. 거치식 투자는 펀드에 일정 금액을 투자한 뒤 수익금 범위 내에서 중간에 일정액을 돌려받거나 가입 시 계약했던 기간이 끝나는 시기에 원금과 수익금을 함께 돌려받는 투자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A펀드에 1년동안 120만원을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 판단을 내리고 즉시 120만원을 투자한 뒤 이후 원하는 시점에 투자금을 되찾는 방법이라 할 수 있죠. 반면, 적립식 투자는 정기적금처럼 일정 시기마다 일정금액을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앞으로 1년동안 120만원을 나누기 12해서 매월 10만원씩 특정 일자에 투자되게끔 설정해 놓는 방식이죠.



(운용 펀드 기준, 자료 출처 : Hints, 비교지수 : KOSPI 90% + CD 91일물 10%)

그렇다면 위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위 그림은 주니어경제박사 펀드 최초 설정일(2005년 4월 27일)로부터 보고서 기준일(2020년 10월 26일)까지의 투자성과를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그럼 선의 색깔별로 의미하는 바를 살펴볼까요? **주황색 선**과 **빨강색 선**은 각각 펀드와 비교지수의 수익률 변동을 나타내요. **주황색 선**이 **빨강색 선** 대비 높은 수치를수록 펀드 성적이 좋았던 거예요.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회색 선은 매월 납입하는 금액인 10,000원씩을 더해가는 누적 투자 금액이구요. **파랑 선**은 1,860,000원을 펀드 설정 직후 거치식으로 투자했을 때 투자금의 변화를 나타내는 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록색 선**은 2005년 4월부터 매월 27일에 10,000원씩 2020년 10월 26일까지 적립식으로 총 1,860,000원을 투자했을 때, 그 결과를 보여주는 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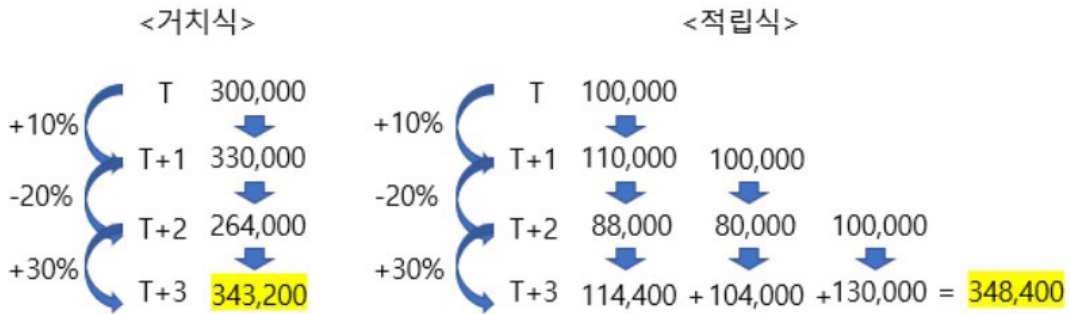
주니어경제박사의 경제열전 - 펀드투자방법 (Feat. 거치식, 적립식) 이야기

위 그림만 놓고 본다면, 거치식 투자가 훨씬 성과가 좋은 투자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거예요. 물론 거치식 투자는 투자 대상의 성과가 좋을 시기에는 적립식 투자보다 더 많은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펀드의 수익률이 우상향하는 구간을 보면, **초록색 선**보다 **파랑 선**이 더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겁니다. 이는 기존에 투자된 금액이 더 많기에 그만큼 수익을 누리는 폭도 커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10만원 투자했을 때 10% 수익을 보면 수익금은 1만원이지만, 100만원 투자했을 때 10% 수익이면 수익금은 10만원으로 그 수익의 규모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펀드의 성과가 안좋을 시기에는 어떻게 될까요? 2008년~2009년은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 위기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주식 시장이 패닉에 빠졌던 시기였는데요. 그만큼 주니어경제박사 펀드 성과도 해당 시기에는 부진했었습니다. 위 표를 보면 **파랑 선**이 **초록색 선**보다 더 가파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투자된 금액이 많은 만큼 손실을 입은 금액도 컸음을 의미합니다. 앞선 예와 같이, 10만원 투자 시 10% 손실은 1만 원 손실이지만, 100만원 투자시 10% 손실은 10만원 손실이기 때문이죠.

위 결과처럼 적립식 투자는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좋은 구간에는 거치식 대비 비교적 얻는 수익이 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불확실한 투자환경 속에서 보수적으로 꾸준히 자산을 키워가기에는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투자의 세계에 있어서 어느 특정 시점에 어떠한 이슈가 증시에 안좋은 영향을 줄 지는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죠. 이전 경제열전에서도 다뤘던 경제 대공황, 미중 무역분쟁, 전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증시 급락 등은 모두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예측하기 매우 어려웠던 일들이고, 큰 돈을 투자하고 있는 와중에 이러한 악재를 맞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손실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에 위의 그림에서 올해 3월의 수익률 하락 폭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익을 지속적으로 보고 있던 펀드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3, 4월 들어 그 수익을 큰 폭으로 반납했었죠. 적립식 투자 또한 시장 급락을 맞아 평가액이 줄어들었지만, 계획대로 펀드에 자금이 매월 투자되었고 이는 곧 투자 자산의 가격이 좀 더 싸졌을 때 사는 저가 매수 효과로 작용해 이후 빠르게 반등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저가 매수했던 부분은 성과를 크게 낼 수 있었습니다.

주니어경제박사의 경제열전 - 펀드투자방법 (Feat. 거치식, 적립식) 이야기



쉬운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위 그림은 30만원을 3개월에 걸쳐 각각 +10%, -20%, +30%의 수익률 변동을 보인 투자 대상에 각각 거치식, 적립식으로 투자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거치식은 30만원을 한 번에 투자했을 경우이고, 적립식은 세 달에 걸쳐서 10만원씩 투자한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3개월 뒤 수익률은 적립식 투자가 소폭 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거치식으로 투자할 때보다 적립식 투자 원금이 작기 때문에 차이나는 금액만큼을 다른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이처럼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투자하길 원한다면 적립식 투자도 좋은 고려 대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투자의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해봤는데요, 각각 장단점이 있고 둘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 지는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장기간 투자를 해나가는 것인 만큼 투자 대상을 선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이 주니어경제박사 펀드의 철학은 기본적으로 단기간의 주가 변동을 예측하기 힘들다는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우수한 투자수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좋은 수익률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시장에서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앞으로 이익을 성장시켜 나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 빌린 돈이 크게 없고 스스로 벌어들인 돈으로 사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튼튼한 기업, 산업 내에서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 이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는 기업 등을 찾기 위해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훗날 투자 대상을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펀드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경제 열전에서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올게요. 다음 경제 열전에서 만나요!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우리 펀드의 운용 (부모님께)

신영주니어경제박사증권투자신탁(주식)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10.49%로 비교지수 대비 4.59%p 상회하는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비교지수(벤치마크): KOSPI X 90% + CD91 X 10%) 이는 펀드 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및 IT 하드웨어 업종이 9월에 강세를 보인데다 일부 화학주들에 대한 비중 높은 투자의 양호한 성과로 인해 긍정적인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운용경과>

8월과 9월에 글로벌 주식시장은 기술주 불안, 미국의 정치 불확실성 확대 및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공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코스피 지수는 연중 고점에 근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경은 언제나 구조적인 지속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더 비중있게 보아야 할 이슈는 여전히 미국의 대선과 글로벌 코로나19 상황입니다. 과거의 대선 임박 시점을 보았을 때 특히 현 대통령의 재선이 불확실했을 경우 더욱 투자심리는 위축되어 지수에 조정 압력을 주었다는 것을 계속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수 레벨에 대한 피로도가 높은 현 시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우량 가치주' 여부를 판단할 핵심적 근거는 1) 얼마나 확장성이 큰 산업(시장)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지, 2) 시장 점유율은 얼마나 유의미한지, 3) 현재의 현금흐름 양상이 양호한지(혹은 앞으로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지)가 될 것입니다.

해당 관점에서, 지난 운용 기간에 이어 동 펀드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높아 향후에도 기업 가치의 구조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1) 견고한 브랜드력을 바탕으로 중국 소비 시장 성장에 따른 꾸준한 기업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럭셔리 화장품 업체, 2) 2차 전지 부문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3) 인구 구조 변화 및 연구개발력 향상에 따른 장기 성장이 기대되는 제약/백신 업체, 4) 해외 신시장 개척에 따른 실적 개선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는 음식료 업체, 5) '그린 뉴딜'이라는 글로벌 정책 기조 아래, 풍력 및 스마트그리드 등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관련 핵심 역량을 보유한 기업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6) 코로나19 이후 '구독경제' 식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구조적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되는 렌탈 업종 기업에 대해서도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 국내 자동차 업체에 관하여서도 글로벌 관점에서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꾸준히 긍정적 시각을 유지해오던 3) 제약/백신 업체(SK케미칼)의 경우, 지난 몇 개월간 충분한 주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차익실현하며 펀드의 안정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우리 펀드의 운용 (부모님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지난 6개월 간 증시를 이끌던 테마를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백신 개발 기대감과 '언택트' 관련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이제 11월이 되었고 지금부터 연말까지 여러 중대한 변수들이 몰렸습니다. 1) 미국 신 정부의 정책 로드맵 발표(트럼프가 패배를 인정할 경우), 2) 브렉시트 결론 (12월 말일), 3) 미국에서의 코로나 백신 개발 및 공급 구조 발표, 4) 코로나 이후 첫 연말 소비자 지수 등 주요 경제지표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순수 소비 측면에서도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중국의 광군제가 11월에 있을 것이고 이번 이벤트 때의 소비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연말까지의 소비 패턴과 분위기를 이끌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PMI 지수는 7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이어나가고 있고 수입 데이터도 9월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 약 13% 늘어난 것으로 봤을 때 연말에 예상보다 양호한 수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난 반년간 한국 경제를 보면 사실 '출발 대기'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관리하는 데에 있어 모범적인 시스템을 보여왔고 지금도 인구 대비 확진자 수 추이를 고려하면 충분히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출이 먼저 살아나야 소비가 따라 오르는 경제 구조이기에 미국과 중국 각각의 회복을 우선 기다려야 하는 답답함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백신 개발 타임라인이 가장 큰 동력이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이 되면 전세계가 코로나19와 함께한 지 1년이 됩니다. 아무리 신사업들이 등장하고 기존 사업들이 진화했어도 사람들은 일단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세상을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있기에 이러한 세상에 조금이나마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면 지난 1년간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소비재 기업들을 다시 봐야 될 타이밍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과도하게 저평가 되었던 소비재, 음식료, 레저/여행 등 업종 내에 확실한 경쟁력과 생존력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는 데 더 큰 노력을 들이겠습니다.